

1-23. 韓國産 거저리上科(딱정벌레目)의 1 미기록科, 1 미기록屬 및 1 미기록種의 報告

李鍾殷*, 朴眞影

安東大學校 自然科學大學 生命科學科

국내에서 처음 보고되는 Trictenotomidae科는 딱정벌레목 거저리상과에 속하며, 전세계적으로 2속 13종(Autocrates屬 3종, Trictenotoma屬 10종)이 기록되어 있다. 생물지리학적으로는 동양구(Oriental region)와 구북구의 남서지역(South-Eastern Palaearctic region)등 열대 및 아열대의 다습한 산림지역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. 이 과에 속하는 종의 형태적 특징은 하늘소의 특징인 긴 더듬이와 사슴벌레의 특징인 잘 발달된 튼튼한 큰 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, 이빨이 난 턱은 좌우 비대칭이며, tarsus가 foreleg:mid-hind가 5:5:4인 점이다. 미기록속인 Autocrates屬에는 현재까지 3종이 포함되어 있으며, 형태적 특징은 수컷의 mandible이 매우 크고 길며, antenna의 선단 3개 마디는 톱날모양이며, maxillary palp는 hatchet-shaped이다. 국내 영양지역에서 처음 발견된 미기록종인 Autocrates vitalisi Vuillet, 1912는 현재까지 베트남, 태국, 말레이아 및 이들 지역과 인접된 중국 일부지역에서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. 이 종은 가슴판이 모서리 부분만 조금 각이 진 직사각형에 가까운 모양이며, elytra의 선단 바로 아랫부분부터 말단까지는 거의 직선형으로 좁아지는 것이 특징이다.

Order Coleoptera

Superfamily Tenebrionoidea

Family Trictenotomidae Blanchard, 1845

Genus Autocrates Thomson, 1860

Autocrates vitalisi Vuillet, 1912